세상을 보는 송호인의 눈

발행인 정창덕 | 주간교수 이은경 | 편집장 이한
주소 25242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남산로 210 송호대학교
이메일 songhonews@songho.ac.kr
홈페이지 www.songho.ac.kr
2018년 6월 14일 목요일 | 20호

송호신문 窓

2018년 체육대회, 제 19회 대동제 개최








지난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에 거쳐 우리대학교는 2018년 체육대회와 제 19회 대동제를 개최하였다. 16일 오후 13시 월계관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피구, 족구, 단체 줄넘기, 2인 3각, 발야구, 축구 결승, 계주 등 종목별로 경기가 진행됐다.

이번 체육대회는 A팀, B팀, C팀, D팀 총 4개의 팀으로 나누어졌다. A팀(방사선과, 치위생과, 유아교육과) B팀(보건행정과, 뷰티케어과, 호텔조리과) C팀(관광대명리조트과, 간호과) D팀(임상병리과, 스포츠레저과)으로 심판의 관리 하에 선의의 경쟁을 벌였다. 그 결과 1등 D팀, 2등 A팀, 3등 C팀으로 D팀이 우승을 했다.

시상식은 19시 30분에 월계관에서 1등 30만원, 2등 20만원, 3등 10만원 순으로 각각 상금이 전달되었다.

축제인 대동제는 16시부터 총학생회의 소개와 즉석 미니게임 및 장기자랑으로 진행되었다. 탄산음료를 마신 후 시 한편을 읊는 게임인 '트림을 참아라', 팔씨름 대회인 '송호 챔피언', 댄스동아리 '제스트'의 공연과 동아리 홍보, 전주를 듣고 음악을 맞추는 '이 노래 뭐야', 만보기 게임인 '흔들어주세요~', 가면을 쓰고 노래를 부른 '실력자를 찾아라', 장기자랑 대회인 '나야 나~'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축제의 꽃인 초대가수들의 공연에는 가수 길구봉구, G2 등의 공연으로 축제의 열기는 한층 뜨거워졌다.

학교 측은 축제기간 동안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21:00까지 통학버스를 연장 운행하고, 사전 조사를 통하여 기숙사 사용을 원하는 학생들은 사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전요원들을 배치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했다.

이날 행사를 진행한 총학생회 관계자는 "날씨가 좋지 않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걱정과는 다르게 학생들의 참여와 호응이 좋아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학생들이 마지막까지 흐트러지지 않고 질서와 규율을 잘 지켜주어서 매우 감사하고 또한 보람을 느낀다. 내년 축제에서는 이번 축제에서의 미숙했던 점들을 보완해서 더욱더 즐겁고 좋은 추억으로 기억되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는 총학생회가 되겠다."라고 전했다.

이 한, 최유빈 기자

Vision 송호인과 함께하는 성가와 오페라 아리아 Concert 개최

지난 5월 31일 목요일 오후 7시에 우리대학교 도약관 3층 예배당에서 "Vision 송호인과 함께하는 성가와 오페라 아리아 Concert"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날 공연에는 정창덕 총장, 이기평 부총장, 교직원, 재학생들을 비롯하여 많은 내외 귀빈이 참석하였다.

공연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또, 모든 송호가족들이 하나 되는 기회를 만들고자 마련되었다. 총학생회장 박지현의 사회를 시작으로 장수호 목사의 기도와 선교 합창단 GTS방송 예술단 소울콰이어(지휘자 : 손인오 교수, 피아니스트 : 김정희) 팀의 "축복하노라", "예수사랑하심은", "하나님의 사랑", "왕이신 나의 하나님" 등의 공연이 이어졌다.

이날 공연을 함께 한 장수호 목사는 "이 콘서트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인지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공연에 참여한 간호과 1학년 심규협은 "예배당이 꽉 차고 넘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보러 와서 놀랬고 오페라를 직접 듣고 보는 것은 처음이었는데 너무 감동적인 자리였던 것 같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종종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이 한 기자



2018 횡성군 귀농귀촌 종합학교 입학식 거행



지난 5월 23일 오전 11시에 우리대학교가 횡성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중인 '2018 횡성군 귀농귀촌 종합학교' 입학식을 개최했다.

모집기간은 4월 27일부터 5월 11일로 모집대상은 수도권 도시민으로서 횡성군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자 위주로 모집하며,모집전형 및 인원은 주중반, 주말반 각 40명으로 선발방법은 접수자 중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했다.

교육의 목적으로는 광역 교통망 확충 및 수도권과의 접근성 용이로 유입기회가 증가된 수도권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귀농귀촌 인구 증가로 지역사회 융화와 안정화 도모하고 귀농귀촌 희망자의 원활한 이주와 정착을 위한 사전 준비 교육 필요성을 제기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친다. 또 귀농귀촌 종합학교를 홍보해 귀농귀촌 희망자의 원활한 이주와 정착을 위한 사전 준비 교육 필요성 제기하고 이주 희망 도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농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김은경 기자, 김일복 기자

송호대, 2018년도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지원 사업 선정



우리대학교는 지난 4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8년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A형(표준모델)에서 우리대학교를 포함 11개 기관이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분야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안전·보호장비 예산 등을 지원해 안전하고 쾌적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실시된다.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거쳐 안전·보호장비 예산을 지원한다.

우리대학교는 2015년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지원 사업에 선정돼 예산을 지원받은 데 이어, 올해도 사업에 선정되어 최대 5000만원의 개선지원 사업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

이번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지원 사업을 통해 혈액학조직학실험실, 입상병리과준비실의 밀폐형 환기 시약장, 안전캐비닛 등을 구비해 연구실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우리대학교 관계자는 "교수와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연구와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전한 연구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수현 기자, 이태근 기자

송호대, 횡성군에 복지지원 기부금 전달





우리대학교는 지난 4월 12일 송호관 진선미관 앞에서 '벚꽃축제&플리마켓'을 개최했다. 우리대학교 직원들이 주최가 된 이번 행사는 지역주민들에게 벚꽃이 아름다운 우리대학교 캠퍼스를 홍보하고 행사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과 교직원들의 기부금을 횡성군 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하여 도움이 필요한 기관에 기부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행사 운영을 위해 내부에서는 교직원들이 플리마켓 물품을 기부하였으며 외부기관에서는 현수막(현대종합광고), 머그컵(횡성우체국)등을 지원했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한 게릴라식 '2018 벚꽃축제&플리마켓'을 2019년에는 동문들을 초청하여 횡성군 지역주민, 송호대 졸업생, 재학생, 교직원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운영방안을 논의 중이며, 기부금 및 수익금은 횡성군을 통하여 복지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

우리대학교 정창덕 총장은 "이번 행사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대학 캠퍼스를 홍보하고 지역을 돕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행사로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횡성군 복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은경 기자

농협 횡성군지부, 송호대에 발전기금 300만원 기탁



지난 23일 농협 횡성군지부는 우리대학교에 학교 발전기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발전기금 기탁식에는 우리대학교 정창덕 총장, 이기평 부총장, 김익홍 사무처장과 NH농협은행 횡성군지부 박종태 지부장, 원락회 부지부장, 장은경 계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앞서 NH농협은행 횡성군지부는 2016년에도 우리대학교에 발전기금 300만원을 기탁한 바 있다.

박상용 지부장은 "발전기금을 통해 송호대에서 미래 사회의 훌륭한 인재가 나오기를 희망하며 앞으로 많은 인재가 양성되기를 바르는 마음에서 기탁한다."고 전했다.

우리대학교 정창덕 총장은 "우리대학교의 발전과 인재 양성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며 앞으로의 대학의 발전과 학생들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백수현 기자

2018 어학능력향상 프로그램운영

우리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는 2018년도 어학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신청기간은 2018년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이다. 신청방법은 학과 및 개인이 직접 신청하면 되고, 신청서 제출처는 송호관 1층 교수학습지원센터이다.

지원 자격은 우리대학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특히 장애학생 및 장기결석자는 우선지원을 받는다.

강좌명은 토의 기초반과 토의 심화반으로 구분하여 받는다. 그리고 교육교재 및 자격증 접수비 1회 지원(50%)을 해 주고, 교육기간은 2018년 6월 18일부터 6월 29일까지이며 시간은 오전 9시~12시로 총 30시간이다.

이 한 기자

유아교육과 제 15회 한울제 개최



우리대학교 유아교육과는 지난 5월 30일 지역 유아교육기관을 초청해 '제 15회 한울제'를 개최했다.

이날 원주의 한강유치원 원아 100여명이 우리대학교를 방문해 동극, 율동, 마술 등의 공연을 관람했다.

이번 한울제는 3년 만에 부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재학생들이 그동안 이론과 실기를 배운 것을 토대로 준비한 행사이다. 한울제의 목적은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실제 유아교육현장에 적용하고 이를 통해 반성적, 실천적 지식을 형성하기 위함이다.

행사에 참여한 2학년 정다빈 학생은 "3년 만에 부활하는 한울제이기에 부담감과 기대를 가지고 참여했고, 한 두 사람의 의견이 아닌 다수의 의견을 조율하기 힘들었지만 그렇기에 더 좋은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유치원 교사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이번 한울제를 통해 한층 성장한 기분이며 선배님들과 동기들과도 잊지 못 할 추억을 마련한 것 같아 뜻 깊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백수현 기자

도서관 "제 3회 사진공모전"





우리대학교 도서관은 지난 30일 "제 3회 사진공모전"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공모전은 '봄'을 주제로 우리대학교의 캠퍼스 모습을 담은 작품을 공모했다. 사진공모전의 개체는 신선하고 아름다운 대학모습이 담긴 다양한 사진콘텐츠를 발굴해 우리대학교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8일까지 총 15편의 작품들이 접수됐고, 심사는 독특하고 참신한 주제표현과 창의성의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심사 결과 최우수상은 김일회 학생(임상병리과 3)의 작품이 선정됐다.

작품을 수상한 김일회 학생은 "졸업을 앞두고 무언가 뜻 깊은 추억을 만들고 싶었는데, 마침 공모전을 통해 모교의 아름다운 봄의 정취를 사진 작품으로 남기게 되어 기쁘다. 졸업 후에도 벚꽃 향기 가득한 봄날이 되면 아름다운 우리학교 캠퍼스가 떠오르고 그 때의 추억에 잠길 것 같아 정말 뜻 깊은 시간이었다."라고 전했다.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마일리지가 수여됐다.

백수현 기자

제 5회, 송 투게더 취업경진대회 수상



우리대학교는 지난 24일 보건과학관에서 제5회 취업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취창업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번 취업경진대회에서는 6개 학과(임상병리과, 방사선과, 보건행정과, 간호학과, 관광(대명)리조트과, 스포츠레저과)가 참여해 총 76명의 재학생이 지원했다.

지원자들은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20명의 면접 예선 심사자로 선발되었으며, 그 중 최종 면접 참가자 10명이 선정되었다. 입사지원서 제출자 전원은 전문가 개별 첨삭 지원, 모의면접 실시 후 전문가 피드백 제공, 참여자 전원에게 면접특강 참여 기회가 제공됐다.

우수상을 수상한 박아경(관광(대명)리조트과 2)은 "저에게는 대명리조트 인턴 면접을 보기 전, 자기소개서를 작성해보고 모의 면접을 경험 해 볼 수 있어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 면접은 경험하면 할수록 임기응변도 생기고 긴장도 떨쳐버리고 두려움도 극복해 나가는 것 같다. 취업을 준비하는 다른 학과 학생들도 앞으로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최우수상을 받은 이예진(간호과 3)외 1명을 포함, 총 10명의 학생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수상자들에게는 장학금과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김은경 기자

집단상담 프로그램 안내

우리 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에서 집단상담 프로그램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한다.

총 모집 학생 각 집단별 선착순 10~12명 이내를 대상으로 4월19일부터 5월2일 까지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120분씩 각 5회로 구분지어 실시한다.

각 프로그램 이름은 대인관계 프로그램 '룸메이트 너와 나', 자아성장 프로그램 '내 인생의 주인공', 학습 증진 프로그램 '공부 레시피', 진로탐색 프로그램 '나 다움을 찾아서', 진로역량강화 프로그램 '취업의 기술'이 있다.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진로를 수월하게 탐색하고 향후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되며 안정된 학교생활을 도모하는 소규모 집단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은 통합정보시스템 프로그램신청 접수 또는 내방하여 신청 및 접수 후, 예약 된 일시에 김효선,안선예 외 2명이 강사로 학교에 방문하여 진행되고 '취업의 기술' 프로그램은 취업을 준비하는 졸업예정인 학년을 대상으로하며 '나다움을 찾아서' 프로그램은 진로 고민을 하는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전 과정이 학생의 직접적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서로 간 협동심을 기룰 수 있으며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자존감과 타인에 대한 신뢰감 향상에 효과적일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김은경 기자, 김일복 기자

임상병리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견학



우리대학교 임상병리과 2학년 학생들이 지난 5월 16일에 국립과학연구원을 다녀왔다. 이에 임상병리과 학과장인 최우순 교수님께서 인터뷰를 해주셨다.

질문1) 국립과학연구원의 어떤 부서를 보고 오셨나요?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견학은 홍보관, 법유전자과, 디지털분석과를 견학하였다. 홍보관에는 국과수의 기원과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주요 범죄를 규명한 사례와 국과수에서 진행한 검사방법 및 과정에 대한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 법유전자과는 1991년 국내 최초로 DNA 감식업무를 시작하였으며, 각종 사건 사고에서 개인식별 및 신원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4년 국내 최초로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하였으며, 최근에는 코이카 ODA 사업 등을 통해 DNA 감식 기술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2006년 서래마을 영아유기사건을 해결하면서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았으며,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세월호 침몰사고 등 대량재난사고 희생자의 신원확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 디지털분석과는 휴대폰, 하드디스크, 메모리카드 등 각종 디지털 증거물에 대한 복원, 복구 및 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며, CCTV를 비롯한 사진, 비디오 등 각종 영상 및 음성의 복원, 판독 위변조 여부 확인, 얼굴, 신장 및 음성의 동일 여부 판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적 및 인영 등의 동일 여부, 위조문서 및 위조지폐의 위변조 여부, 문화재 및 미술품의 진위여부, 디지털 증거물 인증 등에 대한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과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부검실을 별도로 증설하고 있어 과학수사를 통해 범죄 및 재해의 원인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규명하여 범죄와 재해를 예방하고 개선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국가기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고 특히, 법유전자과는 임상병리사 선생님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대학 임상병리과 학생들이 취업가능한 곳으로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하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질문2) 마지막으로 다녀오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 학생들은 법유전과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분자생물학, 혈액분석, 화학분석 등을 통해 인체에서 유래된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현재 임상병리사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되려면 국가고시 자격증을 취득하고 임상에서 병리학 계열에서 경력을 쌓고 석사학위 이상 공부를 하면 됩니다. 이에 좀 더 많은 지식과 공부를 해서 우리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나왔으면 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최유빈 기자

시험기간 내 푸드트럭 운영



우리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지난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오전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선미관 앞에서 푸드 트럭을 운영하였다.

푸드 트럭 메뉴로는 떡볶이와 다코야키 등으로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식이었으며, 가격은 3000원 안팎으로 저렴했다. 총학생회 콜라보 공약인 푸드 트럭은 중간고사로 지친 학생들을 격려하고자 운영한 것이다. 시험으로 지친 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간단하고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여 시험에서 잠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김민지(관광(대명)리조트과, 2)은 "시험기간에 고생하는 학생들을 위해 새롭게 푸드 트럭을 개최한 것은 색다르고 좋았던 이벤트라고 생각 한다."며 "그러나 가격에 비해 음식의 양이 좀 적어서 사먹기에 부담이 갔고 만약 앞으로 푸드 트럭이 또 열린다면 그때는 좀 더 다양한 종류의 먹을거리와 가성비를 고려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백수현 기자

총학생회 소개

제 16대 총학생회는 콜라보(collaboration)라는 이름으로 2018년 활동을 시작하였다. 콜라보라는 단어의 뜻처럼 모두 일하는, 협력하며 학생들의 입장에 서서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일하는 제 16대 총학생회를 소개한다.



총학생회 회장 박지현 학생회

회무를 총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하여 별도의 집행위원회를 구성

안녕하십니까. 총학생회장 박지현입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생의 권한을 신장시키고 확대하기 위해 있는 것이 총학생회라고 생각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학생회가 아닌 학생들이 언제나 쉽게 다가올 수 있는 학생회가 되도록 언제나 눈과 귀를 열고 보고 듣는 학생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하나마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응원해주고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부 부장 김승표,
총무부 차장 손동섭

학생회의 사무관리, 회계업무 및 기타 다른 부서에서 담당할 수 없는 사업을 관장

안녕하세요. 총무부부장 김승표입니다. 우리 총무부는 학교 총학생회비 예산안을 맡고 있고 예산안 총무부 일이 아닌 다른 부서 일도 도와주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동제를 맡으면서 2일 차에 비가 심하게 온다는 기상 일기에 축제 장소를 옮기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총학생회는 많은 학우의 생각을 반영하는 노력하는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홍보부 부장 이재호
홍보부 차장 홍하린이

학생회의 학내외 활동에 대한 홍보 및 회원의 진로대책에 관한 사항, 각종 봉사활동을 관장

안녕하세요. 홍보부 부장 이재호입니다. 우리 총학생회에서는 학교축제와 체육대회의 주최 등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하며 전반적인 학교생활의 불편함을 개선하도록 노력합니다. 이번 대동제와 체육대회를 진행하면서 비가 와서 걱정이 많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함에도 큰 불만 사항 없이 학생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학생 여러분에게는 저희에게 응원을 많이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부 부장 이성민
기획부 차장 이현섭

학생회 제반사업의 기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담당

안녕하세요. 기획부 부장 이성민입니다. 시험 기간 중 푸드트럭을 기획하고 진행했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번 축제 때 아쉽게도 날씨가 좋지 않아서 계획했던 만큼 완벽하게 축제가 진행되지 못했던 게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교직원분들과 학생들이 도와주고 즐겁게 즐겨주셔서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부 부장 김민수
체육부 차장 송희찬

학생들의 심신단련 및 체육 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 담당

안녕하세요. 체육부 차장 송희찬입니다. 체육 물품 관리, 빌린 사람들 명단확인, 체육 관련 공문 작성, 체육대회의 각종 경기 규칙을 작성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기상 악화로 인해 대동제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었는데 나름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게 기억이 남습니다.

학생회에서 또 체육부에서 부족한 점을 2학기 때 더 노력해서 더 발전하는 체육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부 부장 장주연
복지부 차장 백상수

각종 봉사 활동, 복지, 안전 등에 관한 업무 관장

안녕하세요. 복지부부장 장주연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옷도 다 젖고 머리도 엉겨 붙고 몸도 으슬으슬 춥기도 했지만, 처음으로 비옷 입고 빗속을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한 것이 기억에 남았다.

초반엔 잘 버틸 수 있을지 걱정되었지만 비옷 입고 뛰어다니는 것도 밤에 학교를 쭉 순찰하며 도는 것도 처음이라 기억에 남았고 내 인생에서 최고로 힘들면서 재미있었던 축제였습니다.

학술부 부장 임다희
학술부 차장 김다윤

학술, 예술, 취미 등에 관련된 사항과 동아리 활동 담당

안녕하세요 총학생회 학술부 부장 임다희라고 합니다. 저희 부서는 이번 2018 대동제에서 여러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을 하였는데 그 중 대표적으로 1. 동아리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축제 때 홍보 및 공연을 기획하고, 많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 송호 학우분들과 교직원분들이 축제를 어떻게 하면 즐거워하고 참여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게임과 행사를 기획하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활동을 기획을 하고 실행하면서 많은 기억이 남았는데요. 그중에 2가지를 뽑아보면 첫 번째는 모 아님 도 일 것 같았던 송호팝스타이었는데 직접 문자로 신청을 받고 한분 한분 만나서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만나는 시간과 가면·의상 등 상의를 하는 순간들이 너무 소중했고 너무 기대되고 신이 났었습니다.

두 번째는 비가 너무 많이 오게 되어서 장소를 바꾸는 번거로움이 생겼었는데 비를 맞으며 일을 하고 계속 뛰고 기획 수정하고 총학생회 분들과 교직원분들께 진짜 너무 수고하셨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날씨와 장소가 변변치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셨던 송호 학우 분들께도 감사드려요.

총학생회는 우리 학우분들이 있기에 저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학우분들을 위해 열심히 일할 거니 언제든지 불편하시거나 힘든 일 있으시면 이야기해주세요. 아직 부족해 보일지 모르는 콜라보 총학생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모든 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한 기자, 최유빈 기자

스승의 날 행사 과별 인터뷰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우리대학교 각 과에서는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스승과 제자가 하나가 되는 행사들을 마련했다.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간호과 양혜련 교수

학생들에게 많은 사랑을 전하고 싶지만 올해 처음 부임이 되어 전임교수가 처음이라 아직까지는 그러지 못해요. 그래도 우리 과 학생들이 시간이 지나서 학창시절을 돌이켜 봤을 때 "그땐 정말 행복했다", "나한테 최고의 학창시절 이였다" 라고 추억해 줄 수 있는 학창시절을 만들어 주고 싶어요. 그리고 취업을 인생의 목표가 전부가 아닌 긴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치관을 학창시절에 생각을 해서 인생 설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학기 동안 추억에 남는 일이 있었나요?



관광대명리조트과 채용식 교수

스승의 날 마다 항상 이벤트가 있었는데 올해는 특이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2학년 학생들이 케이크를 들고 강의실로 들어와 스승의 날 노래를 불러주었는데 그 뒤로 과대표가 리포트 형식으로 롤링 페이퍼를 만들어왔을 때 형식적인 것을 벗어나 독특한 롤링페이퍼 속에서 학생들에게 애틋함과 고마운 감정과 스승의 대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또 다른 행복이자 가치가 있는 선물이라 감동이 더 크고 정성들여서 만들어준 우리 학생들의 마음씨가 너무 예뻤습니다.

이번 학기 동안 추억에 남는 일이 있었나요?

방사선과 김갑중 교수

신입생을 새로 맞아 재학생들과 함께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학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새로운 얼굴들을 맞이하는 설렘이 있었던 입학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대학을 들어와 서로가 서먹함이 있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따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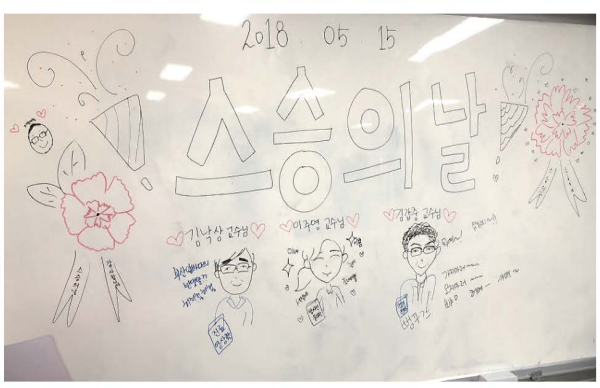
스승과 제자의 사이의 벽을 없애고 싶어서 항상 마음의 문을 열고자 부재중을 제외하고 방문을 항상 열어놨는데 많은 학생이 스스로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 상담을 했던 그 모든 순간이 추억들이 될 것 같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처럼 김낙상 교수, 이주영 교수와 함께 하나가 되어 단결되고 화목한 모습을 보이고 학생들의 길을 잡아주는 등대와 같은 스승이 되고 싶습니다.

잘 따라와 준 학생들에게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앞으로도 더 하나가 된 방사선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임상병리과 임용광 교수



항상 스승의 날이 되면 학생들에게 감사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함께 듭니다.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보람에 비해 과연 학생들에게 좋은 선생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랜만에 졸업한 학생들에게 수줍은 듯 받는 안부전화와 메시지의 무게와 마음을 알기에 지금의 재학생들에게 좀 더 노력하고 애써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언제부턴가 스승의 날은 감사의 마음을 받는 날에서 한 번 교수로서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날인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 동안 추억에 남는 일이 있었나요?

유아교육과 금미숙 교수

한울제가 가장 추억에 남습니다.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활동내용을 한강 유치원 원아들에게 공연을 보여 주였을 때 열심히 단합하는 학생들 모습이 예쁘게 보였습니다.

이 한 기자, 최유빈 기자

학과 탐방

우리대학교 간호학과를 소개합니다

송호대학교 간호학과는 2012년도에 3년제 학과로 개설되어 2018년 올해부터 4년제 학사과정 승격되었습니다. 우리학과는 학생들이 전인간호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문, 사회, 자연과학, 간호과학을 통합적으로 교육시킨답니다. 또한 정의,노력, 사랑의 교육을 바탕으로 인류애와 봉사정신을 함양시키기 때문에 송호대 간호과 학생들은 지역사회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회복 및 안녕에 기여할 수 있는 간호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간호사로 양성합니다.









Q. 간호학과의 교육체계와 간호교육목표, 인재상은 무엇인가요?

간호학가 교육체계는 "국가와 인류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창의적 능력과 인성을 겸비한 전문 간호리더 양성" 이라는 교육목적으로 7대 교육목표와 4대 인재상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목표로는 1.인간의 총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전인간호를 실천한다. 2.과학적 간호지식과 숙련된 기술을 간호에 통합 적용한다. 3. 간호과정의 실무적응을 의한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능력을 증진한다. 4.대상자 건강개선을 위한 전문분야간 의사소통과 협력능력을 갖춘다. 5.간호전문직 발전을 위한 가치관, 윤리의식 및 리더십을 함양한다. 6.지역사회발전 및 사회봉사에 보건의료인과 적극적으로 협동한다. 7.국제화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보건의료 정책변화에 대응하는 글로벌 역량을 갖춘다. 목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재상의 내용으로는 지성과 인성을 갖춘 건강한 간호인, 창의적 사고능력을 갖춘 전문 간호인, 과학적 지식을 갖춘 전문 간호인,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도전 정신을 갖춘 간호인으로서의 인재를 인재상으로 추구합니다.

Q. 간호학과에서는 어떤 것을 배우나요?

1학년때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와 기본소양함양을 위한 필수교양교과목(인간관계와 의사소통, 성장발달, 윤리와 철학, 건강상담심리, 기업과 창업, 리더십 등..)과 그 외 다양한 문제 해결능력을 위한 교양선택(대인관계, 문제해결능력, 바리스타, 제과제빵, 검퓨터교육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2학년에 올라가면 생명존중 및 직업기초능력 함양을 위한 기초의학교과목(의학용어, 생리학, 해부학, 병리학, 미생물학, 약리학등..), 전공 필수교과목(기본간호학, 건강사정등..)에 대해 강의를 듣습니다. 3학년에서는 본격적으로 전문적인 현장실무를 위해 이론전공교과목, 임상실습교과목을 진행하며(성인간호학, 여성건강간호학, 아동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정신건강간호학, 간호관리학등..) 막바지 4학년에 들어서면 3학년 때 배웠던 것을 더 보충하고 심화학습을 하게되며, 보건의료법규를 추가적으로 듣습니다.

또한 4년간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간호사 면허취득을 위한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실행하며 의료인으로서 구비해야할 기본능력인 BLS(심폐소생술)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취업연계를 위한 취업프로그램 참여합니다. 더 나아가서 현장중심교육 캡스톤 디자인을 교육받고 실행합니다.

Q. 간호학과 만의 특수성은 무엇인가요?

간호학과는 나이팅게일 정신을 기본으로 전문적인 간호업무를 위한 인재 양성을 위한 송호대학교의 유일한 의료인을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현장 실무습득을 위한 실습시간이 3학년 4학년 기간 동안 1,000시간 진행하며 이론교과목 학점을 합하여 140학점을 이수하여야만 간호사 국가고시에 응시 할 수 있으므로 교과과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병원과 지역사회 기관 실습으로 진행되고, 2학년 2학기 임상실습을 시작하기 위한 위한 준비시간으로 학생 간호사로서의 자질함양과 예비 간호학생으로서 직무의 숭고한 정신을 일깨우기 위한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진행합니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이란 나이팅게일의 희생과 숭고한 간호정신을 본받아 인간생명을 위해 사랑과 봉사로 헌신할 것을 다짐하고 임상실습 전 예비간호사로서의 자세와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간호전문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해 치르는 의식입니다. 우리대학교 간호과는 2012년에 신설된 후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임상실습 협약을 체결하고 양질의 보건의료 인력에 힘쓰고 있습니다.

Q. 간호사라는 말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면?

"백의의 천사"라는 많은 사람들의 표현이 있으나. 송호대학교 간호학과에서는 "냉철한 머리 따뜻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간호사는 명석한 사고를 할 수 있는 냉철한 두뇌가 필요합니다. 언제나 공정해야 하며 치열한 전쟁터같은 현장에서 위기의 순간을 잘 대처할 수 있는 지성을 가져야합니다.

그러나 냉철한 머리만으로는 안됩니다. 따뜻한 심장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머리는 지성을 상징하며, 심장은 덕성과 양심과 사랑을 상징합니다. 좋은 간호사란 따뜻한 마음, 아름다운 덕성, 성실한 마음, 냉철한 머리가 필요합니다.

Q. 마지막으로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한마디

여러분의 꿈을 향해 일상의 많은 일들 속에서 분쟁과 부정의 문제로 시간을 버리지 말고 발전적인 시각으로 건설적인 비판적 사고로 학교생활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간호사가 되는 건 힘겹습니다. 3교대 근무와 잦은 초과 근무, 점심시간도 따로 없는 근무 환경, 봉급도 적고 간호사 군기 문화까지 더해져서 몸과 마음은 기진맥진이 될 것이며 꿈꾸는 것 조차 간호사에게는 사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꿈꾸는 간호학과 학생들은 분명 자신의 간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는 좋은 간호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더욱 보람찬 시간으로 행복 가득하시길 바라며 내일의 꿈은 송호대학교 간호학과에서 열광하는 삶, 오늘의 현실에서 만들어지기에 응원합니다.

김은경 기자, 김일복 기자

우리대학교에 새로 오신 교수·조교님



간호학과
김 은 미 교수

안녕하세요, 간호학과 김은미 교수입니다^^

대략 3년 전에 외래교수로 송호대학교 캠퍼스를 밟고 학생들을 만났었는데, 이렇게 또다시 송호대학교에 와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에 감사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어떤 신념이 있나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고자 노력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분야를 전공할 지, 어떤 직장을 가고, 어떤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할 것인지와 같은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 때, 사람마다 선택의 방향과 결정이 다른 것은 각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가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적 정의로 가치관은 '인간이 자기를 포함한 세계나 그 속의 사상에 대하여 가지는 평가의 근본적 태도'라고 합니다. 가치관은 일평생 살면서 많은 것에 영향을 받아 형성이 되는데, 그 중 가장 크고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자로서 '간호학'을 가르치고 많은 학생들을 만나면서 교류하고 상담하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건강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이 제 교육 신념이라면 신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호과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세요.

'간호학'을 가르치다보면 종종 학생들의 볼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학업에 대한 어려움과 실습에 대한 부담감, 빡빡하게 진행되는 학과의 스케쥴에 힘겨워하는 학생들의 이유있는 아우성이지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 또한 몹시 안타까워집니다.

'간호학'은 인간을 이해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호의 대상은 대상자 뿐만이 아닌, 그의 가족들과 집단, 더 나아가 지역사회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병원으로 임상실습을 다녀온 2,3학년 학우들은 실습현장에서 대상자와 가족들의 관계에 얽힌 수 많은 사연과, 실제로 간호가 이뤄지는 전문직 현장들을 접하면서 교과서에서는 배우지 못했던 경험들을 했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의 교과과정으로서 간호 전문직을 배우는 것만이 아닌, '나'라는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힘들고 지치는 순간이 오겠지만, 이러한 과정들을 학과 교수님들, 친구들, 선후배들과 함께 나누고 공감하며 성장하는 학과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간호과 학생들에게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보냅니다~~

학교에 모든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이야기를 해주세요.

대략 7년 전에 '공부는 내 인생에 대한 예의다'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뜨겁게 자신과 자신의 삶을 사랑한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책의 내용 중에는 저자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담아내면서 구체적 학습전략도 소개하고 있어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우리는 흔히 '공부'라고 하면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 또는 그 산물로 이해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러나 한 발 더 나아가면 지금껏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공부'는 우리가 일평생 삶에서 공부해야 하는 '인생공부'의 한 부분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해진 답안도 없고, 목적지도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훌륭한 스승의 지도를 받으면서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끊임없는 도전으로 경험을 쌓아가면서 '인생공부'에서 만큼은 최고의 우수자가 되는 송호대학교 학생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치위생과
김 아 름 조교

안녕하세요. 2018년에 치위생과를 졸업하고 선배이자 조교로 다시 치위생과를 찾아온 치위생과 조교 김아름입니다.

이번학기 동안 기억에 남는 일이 있나요?

여러 학과 행사가 있었지만 저는 처음행사인 18학번 신입생 입학식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처음 들어온 신입생들도 처음 맞는 낯선 곳에서의 입학식이 많이 떨리고 긴장이 되었을텐데요. 저 역시도 조교로서 처음으로 18학번 신입생들을 보면서 겉으로 표현은 안했지만 조교를 하면서 처음 맞는 행사인 만큼 떨리고 긴장 되었던 것 같아요.

치위생과 학생들의 첫 인상을 말씀 해 주세요.

지금 재학생들은 작년에도 같이 학교에서 보며 지내서 어색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들어온 18학번 신입생들은 처음 보았을 때 너무 순수하고 긴장한 모습이 보여서 마치 저의 1학년 때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위생과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번학기 동안 학생들이 잘 따라와 주셔서 큰 사건사고 없이 지나간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1학기도 무사히 잘 마무리한 만큼 방학 기간 동안 알차게 보내시고 2학기에 들어와서도 치위생과하면 서로가 하나 되어 사이좋고 단합되어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6학번 학생들이 다가올 국가고시를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원 국가고시 합격해서 그간에 노력이 헛되지 않고 다들 마지막에 웃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치위생과 화이팅!!

가로세로 퀴즈 당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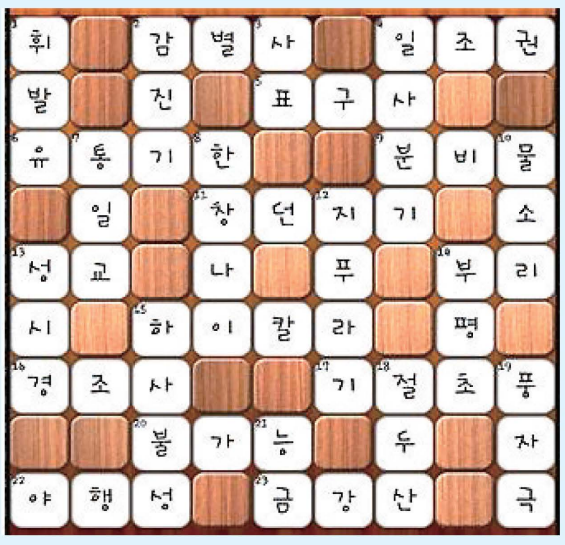
정옥교 ou*****@naver.com
김소원 al*******@naver.com
박지혜 45*****@naver.com
이지영 fl********@naver.com
정서희 we****@naver.com

틀린그림찾기 당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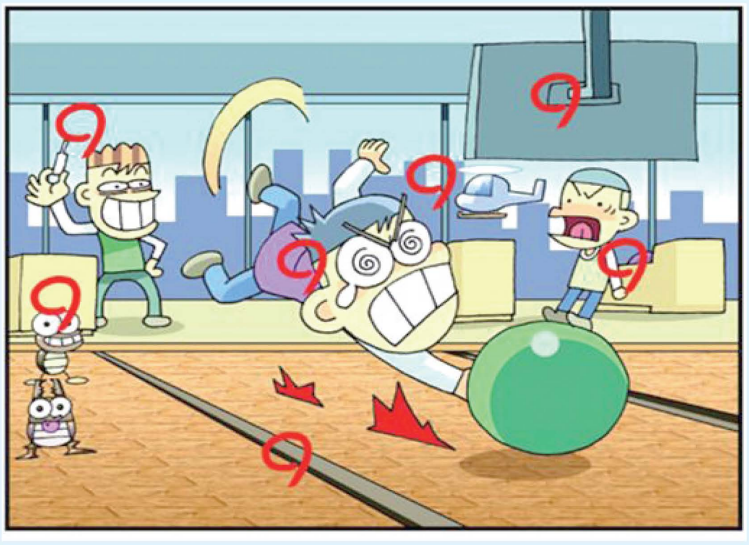
김소원 al*******@naver.com
박지혜 45*****@naver.com
김유진 gi******@gmail.com>
정하영 jh*****@naver.com
정서희 we****@naver.com

백수현 기자, 이태근 기자

가로세로 퀴즈 정답



틀린그림찾기 정답



제19회 대동제 속 학생들의 이야기

보건행정과 1학년 이정인

과에서 운영했던 부스와 가수 길구봉구의 무대를 보았는데 가수들의 라이브를 실제로 본 것이 처음이어서 기억의 남는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 수업을 같이 듣던 과 여러분들과 함께 술도 같이 먹고 어울릴 수 있었기에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간호과 3학년 문준태

곧 장기자랑을 나가는데 재밌는 추억을 쌓고 꼭 1등 해서 상금을 받고 싶습니다. 비가 와서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한 점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가수들도 노래가 좋아 재밌었지만 여자 연예인이 왔으면 좀 더 좋았을 거 같아요 좀 더 참여도가 높았으면 좋겠어요.

치위생과 1학년 이세빈

저희 과엔 남자가 두 명이라서 아직 친해지지 못해 참여를 못 하였는데 내년에 축제 땐 과 동기들과 친해져서 같이 많은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음식 만들면서 추억을 공유한 동기들이 함께해줘서 고맙고 덜 힘들었던 거 같아요. 동기, 선배님들 축제 준비하면서 힘들었지만 좋은 시간 이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년간 잘 부탁드려요 !

임상병리과 1학년 김진경

술 판매가 안 된다는 걸 알기 전에는 주점에서 안주를 정하고 가격을 정하는 게 힘들었는데 나중에 총학생회에서 교육부 지침으로 술 판매 금지라는 말을 듣고 수정을 하고 예산에 맞춰 안주와 술을 준비하는 부분이 힘들었어요. DJ가 와서 신나서 선배님들과 앞에서 같이 놀고 가까워질 수 있었고 노래도 신나는 노래 위주여서 제일 재미있던 거 같아요. 첫 대학 축제인데 비가 와서 재미도 없고 마냥 찝찝할 줄만 알았는데 다 같이 재밌게 놀고 동기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어서 좋았고 즐거웠어요.

방사선과 1학년 이승훈

이번 축제를 통하여 더욱이 과의 단합이 잘 돼 다른 큰 대학교의 축제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시간 가는지 모르고 아무 탈 없이 잘 진행되는 점이 가장 장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행사들 보다 한정된 공연 가수 섭외와 기상 악화로 인해 다소 볼거리가 부족했던 점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유아교육과 3학년 전용훈

축제 첫날 길구봉구의 공연이 가장 인상 깊었고, 항상 뉴스에 화근에 되는 대학 축제 기간 속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 저도 몹시 걱정되었지만 학교 측의 관리 감독으로 인해 건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다는 점과 각 학과의 단합력이 좋아 큰 사고 없이 서로 챙겨주며 잘 마무리된 점이 저희 송호대학교만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수현 기자, 이태근 기자, 김일복 기자, 최유빈 기자

횡성군, 제 96회 어린이날 행사 개최

지난 5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7시까지 횡성군은 문화체육공원에서 "제 96회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했다.

본 행사는 제96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모든 어린이를 아끼고 존중하자는 어린이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행복한 시간을 선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MBC 조은영 아나운서의 사회를 시작으로 개막하여 "1군사령부 태권도 시범 공연", "횡성여고 치어리더 팀 카프페디엠 공연"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과 "모범어린이 표창", "아동친화도시 염원 퍼포먼스" 등의 식후공연 순으로 이어졌고 다양한 체험부스와 가족놀이 마당 및 먹거리 마당과 물방을 축제 등 작년에 비해 2배 가량 확대 된 다양한 행사가 진행 되었다.

이 한 기자, 최유빈 기자





송호대학교 대표 신문사 窓(창) 신입기자 모집

모집대상 송호대학교 17, 18학번 학생 누구나 가능

지원자격
시간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성실한 사람
사진촬영 및 인터뷰 등 취재활동이 가능한 사람
글쓰기를 좋아하고 글 쓰는 방법을 배우고 싶은 사람

기자특전
학생기자 임명장 수여
기자특강 및 신문사실 이용 혜택
지도 교수님, 선생님, 기자들과 즐거운 학교생활
기자 특별 장학금 지급

지원방법 개별 면접

지원 문의 : 편집장 이 한 (010-9224-2500 / ehan0426@nate.com)